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삼청 좌혜선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 개최

- 떠오르는 젊은 한국화 작가 좌혜선의 아라리오갤러리 첫 번째 개인전
- 가로 폭 20여 미터의 대형 목탄 드로잉 연작 공개
- 채색화, 드로잉,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삶에 대한 풍부한 통찰 제공



좌혜선, 가장 보통의 이야기 10, 2017-2018, charcoal on paper, 161x131 cm

전시 제목	가장 보통의 이야기 The Most Ordinary Stories
전시 기간	2018년 7월 5일 목요일 - 8월 19일 일요일
기자간담회	2018년 7월 4일 수요일 14:00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전시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삼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길 84 (03053)
전시 작품	회화, 드로잉, 텍스트 37점
관람 시간	화요일 - 일요일 10:00 - 19:00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삼청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젊은 한국화 화가 좌혜선(1984~)의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채색화 작품 7점과 처음 선보이는 15점짜리 목탄 드로잉 연작, 손으로 직접 쓴 짧은 소설 15점 등 37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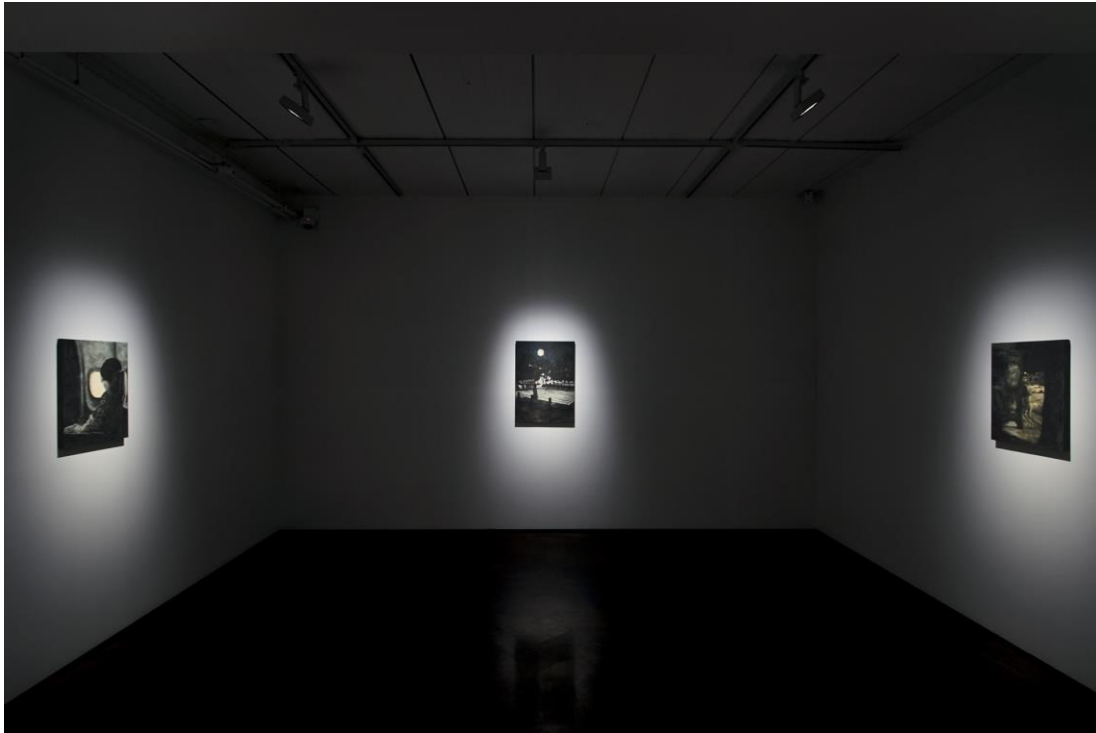
좌혜선 작가는 장지에 분채를 밀도 있게 여러 겹 덧칠하고 다시 닦아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먹고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그려왔다. 부엌의 풍경과 그 안에 있는 여성의 모습, 누군가를 기다리고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생계와 가장 밀접한 현실뿐 아니라 사람 간 관계와 책임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금까지 천착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주제로 '가장 보통의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1층 전시장에서는 유난히 어두운 바탕의 채색화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거리에 서있거나, 어딘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만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는 없는 그림 속 인물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연들을 추측하고 만들어나가도록 한다. 또한 현실과 기억 속 장소가 공존하는 풍경,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강렬한 대비는 우리에게 평소 익숙한 장면을 낯설게 하며 풍부한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좌혜선은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작가로서 처음 시도하는 목탄 드로잉 연작 15점과 짧은 소설 작업 15점을 선보이며 시각언어를 넘어 문자언어로까지 이야기 전달 방식을 확장한다. 100호 크기의 종이에 반복해 선을 긋고 손으로 문질러 만들어진 흑백의 풍경 드로잉은 각각 단편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로 이어져 만들어진 가로길이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파노라마 풍경과 인물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목탄드로잉과 함께 전시된 15편의 소설 작업들은 작가가 방문미술교사로서 가정집에 드나들었을 때 실제로 봤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쓴 짧은 1인칭 소설들이다. 각기 타인의 손을 빌어 쓰여진 이 이야기들은 <가장 보통의 이야기>라는 제목과 달리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실의 단면들을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역설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드로잉과 소설 속 서로 다른 개인의 이야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들려주는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외롭고도 쓸쓸한 사회상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작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매일 무심코 사는 삶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닿기 어려운 삶의 모습인지도 모를 '보통의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좌혜선 작가는 제주에서 출생하여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0년 제1회 개인전과 2015년 제2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0년 대만 국립국부기념관, 경기도 안산 단원전시관, 2012년 서울 이랜드스페이스, 2016년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의 그룹전 등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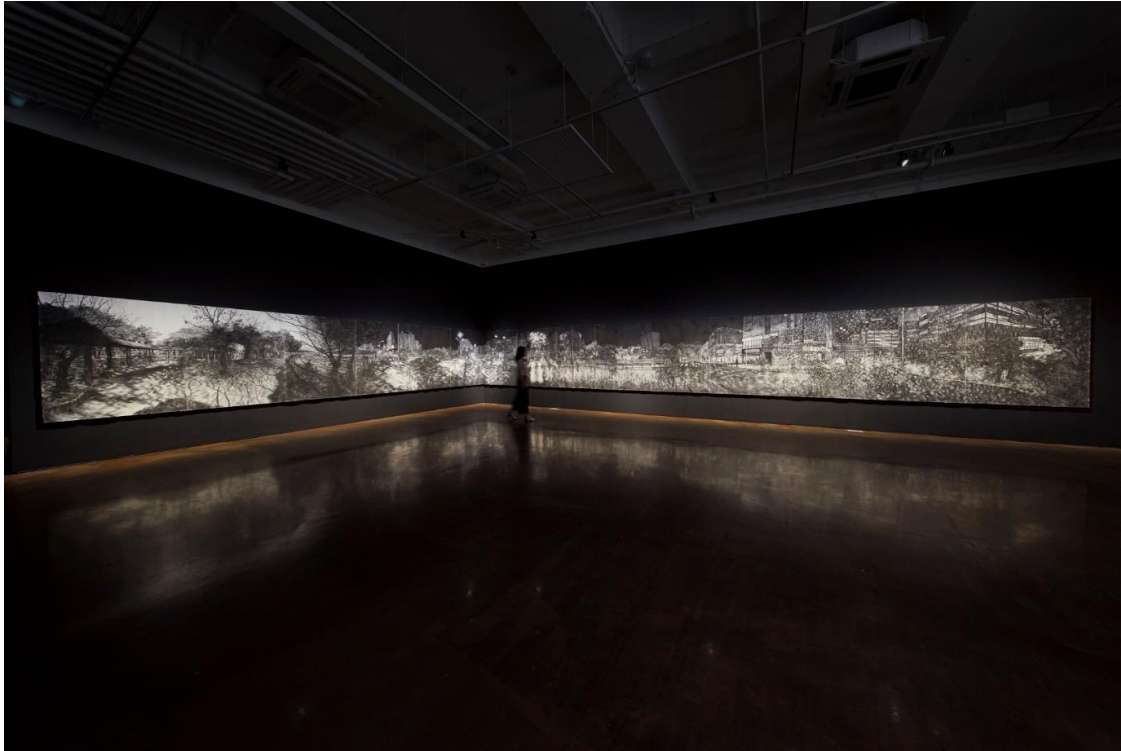
[별첨 1]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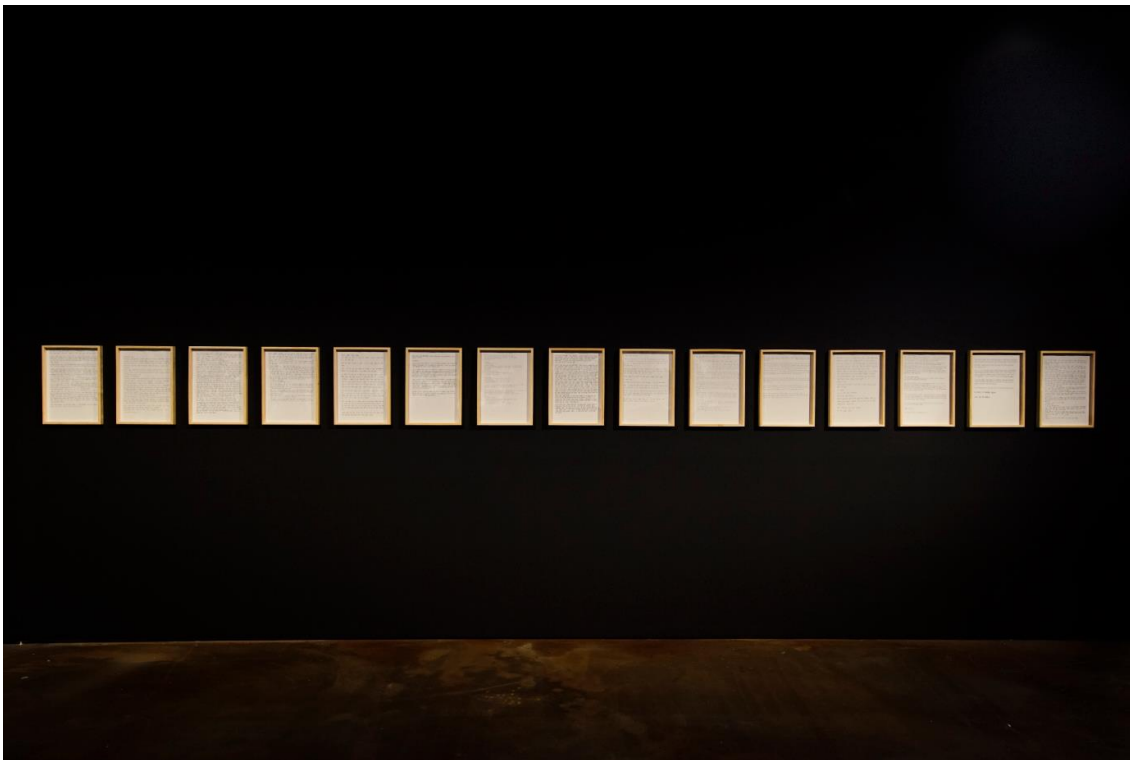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삼청_좌혜선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 전시 전경 [1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삼청_좌혜선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 전시 전경 [1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삼청_좌혜선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 전시 전경 [지하 1층]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삼청_좌혜선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 전시 전경 [지하 1층]

[별첨 2] 작가 약력

좌혜선 左惠善

1984년 제주 출생

경기도 거주 및 작업

학력

2012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졸업

2008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5 낮익은 풍경, 이랜드 스페이스, 서울

2010 끼니, 스페이스선+, 서울

단체전

2016 제주정글전, 아라리오뮤지엄 바이크샵, 제주

2014 묵선전, 성균갤러리, 서울

현대초상화 모색전, 갤러리한옥, 서울

지금,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까?展, 스페이스선+, 서울

2012 New generation展,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안견회화의정신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0 묵선전, 성균갤러리 서울,

단원미술제, 단원전시관, 안산

중한예술교류전(성균관대-대만국립사범대학교류전), 대만국립국부기념관. 타이페이

한국화, 새로운모색-후소회 청년작가 초대전, 한국미술관, 서울

2009 192-6번지 A Relay Project of Young Artist 展, 갤러리 더 케이, 서울

2008 化生展, 갤러리꽃, 서울

[별첨 3] 전시 서문

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읽는 가장 보통의 이야기

정서윤

(아라리오갤러리)

가장 보통의 이야기란 어떤 이야기일까?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보통의 삶이란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의 삶은 과연 보통의 삶일까? 이러한 질문에 과연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작가 좌혜선의 작업은 이러한 질문들이 오가는 현장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자신의 작품이 너무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녀 말대로, 그녀가 그리는 이야기들은 난해하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니다. 그녀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린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잠을 자는, 몹시도 평범하고 누구나에게 해당될 수 있을, 삶의 냄새가 나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 누구에게는 가장 특별할지도 모를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녀는 듣고, 관찰하고 또 그린다.

좌혜선의 그림을 처음 접하게 되면 그녀의 그림이 풍기는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로 인해 짐짓 놀라게 될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버스정류장에서 지친 몸을 기대어 홀로 버스인지 무엇인지 모를 뭔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뒷모습, 어딘가를 가다 말고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듯한 사람, 횡단보도 앞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 어딘가 앓아 생각에 잠긴 듯한 사람의 뒷모습 등, 그의 그림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하나같이 낮이건 밤이건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름 모를 이의 고독한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린다면서 작품이 이토록 음울한 것은 왜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어두운 그림은, 어쩌면 가장 삶과 가까운 이야기를 담은 진솔한 풍경일지도 모른다.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좌혜선은 자신이 실제로 듣고 본 이야기와 풍경들을 지극히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여기에 사진으로 포착한 듯한 구도가 더해져 그녀의 작품은 그 자체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 소설과 비슷한 인상을 준다. 예로, 그녀가 첫 개인전 《끼니》(2010)에서 선보였던 채색화 작품들은 좁은 부엌 공간의 부분부분을 바라본 듯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시의 제목이 암시하듯 매일의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던 자전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작품들이다. 주변 또래들로부터도 고립되어 끼니와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일상의 무게를, 그녀는 마치 타인의 일처럼 덤덤히 그려냈다. 부엌은 작가 자신이 속해있었으면서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던 삶의 현장이자 그 무게를 품고 있는 공간이었음에 분명하다. 찬장의 그릇들과 접시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냄비들, 이들은 일상에서 가

장 자주 보고 만지는 그 어떤 것이었으리라. 새까만 어둠 속에서 열린 냉장고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인, 우스꽝스러우리만치 기괴한 포즈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인,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이 인물들을 작가는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렸다. 작가는 장면 속 감정에 대한 직접적 서술을 피하고 그림 속 대상과의 친밀함을 유보함으로써 오히려 그림을 '읽는' 관람자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끌어낸다. 이후 두 번째 개인전 《낮익은 풍경》(2015)에서 그녀는 부엌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사람들의 유대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퇴근 길 버스를 기다리고, 길에 멈춰 달을 바라보는 사람들, 밤에도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와 포장마차,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아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처럼 늘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주된 소재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복을 기원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습과, 그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책임이라는 굴레, 그리고 못내 포기해야만 했던 자유. 몹시도 낮익은 풍경이지만 간절함을 담은 삶의 면면을 마치 관찰일기를 적듯 그림으로 옮겼다.

이번 아라리오갤러리 개인전 《가장 보통의 이야기》(2018)에서도 작가는 여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갤러리의 1층 전시장에 전시된 채색화 작품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둡고 음울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강렬한 명암 대비와 특정 색상만이 부각되는 방식도 동일하며, 사진으로 찍은 듯한 구도도 여전하다. 연작으로 그려진 <귀가>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의 모습을, <강변>은 강가에 앉아 있는 인물의 뒷모습을, <출근길>은 출근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꽃 사진을 찍는 이의 모습을, <형아>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형제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실제로 그녀의 작품 속 배경들은 그녀가 길을 가다 본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두거나 스케치를 해두었다가 인물을 더해 그려진 장면들이다. 그녀는 실재하는 풍경에 인물을 짜맞춤으로써, 자신이 본 장면으로부터 받은 인상과 당시 들었던 강렬한 기억들을 화면 위에 재구성한다. 이로써 인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건이 있는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동양화 분채 안료를 사용해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색의 층들과 마른 붓터치는 어두움을 한 층 더 깊게 만들며 모종의 우울함을 더한다. 감정을 제외한 밝은 부분의 색은 인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한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작품 속 빈 공간, 즉 여백은 독특하게도 칠을 얇게 해 마른 후 물로 닦아내는 과정을 수 차례 수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색의 층이 쌓여 만들어진 어두운 부분과 밝게 색조만 남은 여백의 대비는 작가가 포착한 일상의 평범한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와 연출은 좌혜선의 작품이 포착한 일상의 장면 전후에 서사적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마치 연극의 정지된 한 장면처럼, 또는 소설 속 한 장면을 그린 삽화처럼 제시된 개별 작품들은 관람자가 그림 속 장면 전후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상상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좌혜선의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인데, 성별이나 연령대 정도만 가늠할 수 있게 뒷모습만 등장하거나, 표정과 이목구비 등은 알아볼 수 없게 흐릿하다.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사연을 품고 있는 듯 보이며, 상상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평범한 장면들은 이로써 장기적인 생명력을 얻

는다.

3년 만에 갖는 이번 좌혜선의 개인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매체 확장과 실험 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지하 1층 전시장에 전시된, 100호짜리 15점으로 이루어진 목탄드로잉 연작 <가장 보통의 이야기>이다. 반복된 목탄 선과 겹겹이 덧칠하고 손으로 문질러 만들어진 검정색 면, 그리고 여백이 만들어낸 풍경은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다. 흥미로운 것은 멀리서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는 이 길다란 그림들이 실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서로 다른 장소들이 이어 붙여져 조합된, 사계절과 밤낮이 모두 존재하는 기묘한 풍경이라는 점이다. 다리 위에 서서, 눈 내리는 겨울 가로등 아래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버스 정류장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은 각각 복잡다단한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모습은 삶에 지치고 외로워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희망적 느낌을 어렵듯이 발산한다. 채색화 작업들이 제한된 색채를 통해 인상을 전달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흑백의 풍경들 또한 풍부한 이야기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풍경 속 개별 장면들은 각각 분절된 서사와 시간성을 보여주지만, 하나로 이어졌을 때 우리를 둘러싼 여러 시공간을 함축함으로써 누구의 삶에나 존재하는 '가장 보통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재와 상상을 적절히 버무려 평범함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좌혜선의 작품은 마치 문학의 장르 중 소설과도 닮아 있다. 그림이 사건의 일순간을 한 눈에 장면으로 제시하는데 비해, 소설은 시간의 호흡을 따라 사건의 내용을 짚어가도록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좌혜선은 이번 전시에서 실제로 자신이 쓴 글을 과감하게 작품으로 제시했다. 파노라마 드로잉과 같은 공간에 전시된 A3 크기의 연필 수기 텍스트 15점은 드로잉과 함께 존재하면서도 그림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이 텍스트들은 작가가 직접 쓴 짧은 소설들로, 각기 다른 이의 손을 빌어 종이 위에 연필로 쓰여졌다. 작가는 실제 쉬는 동안 끊임 없이 책을 읽는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 스스로 단편소설집을 준비할 만큼 글에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녀가 일상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작업의 소재로 삼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시된 소설들이 그녀의 다른 소설들과 차이가 있다면, 작가가 전해 들은 실화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벗어날 수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는 아버지, 남편을 손버릇을 닮아 친구의 뺨을 때린 초등학교 아들을 둔 젊은 엄마, 손주를 위해 아들 내외에게 굶까지 해준 할머니, 기별도 없이 수시로 가출하는 엄마를 둔 딸의 이야기. 이들은 실제 사건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1인칭 '나'의 시점에서 쓰여졌다. 소설 속 화자들은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평범한 샐러리맨이자 주부, 학생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엄마, 할머니, 딸과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무언가 하나씩은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어찌 보면 전혀 보통이 아닌 이야기들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종이에 옮겨진 각각의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경계를 흐리며 더욱 있음직한 이야기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 소설의 기본 요소인 허구성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진실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삶의 이야기만큼 풍부한 이야깃거리는 없으며 그만큼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평범한 듯 비범한, 나아가 이상한 이야기들은 과연 이

들 제목이 말해주듯 가장 보통의 이야기일까.

이쯤에서 이제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답을 해보고자 한다. 작가는 “가장 보통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장 보통’이라는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현상이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사랑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그런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보통의 삶을 그리며 살지 않느냐고. 그녀의 말처럼,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지도 않는 듯하다. 얽힌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리지 않듯, 어긋난 한 가지를 바로잡는다 해도 모든 것이 단번에 순조로워지지 않는 것이 되려 보통의 삶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실 ‘가장 보통’의 삶이란 지금 우리의 현재이면서도, 실은 가장 다다르기 어렵기에 가장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좌혜선의 작품이 던지는 질문들을 되짚으며, 이제 나와 당신의 이야기, 가장 우리 가까이 또 멀리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통의 삶을 살며 또 가장 보통의 삶을 원하는 이들의 수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차례다.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_Seoul → 좌혜선_가장 보통의 이야기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문의

전시팀 | 강소정 팀장 M. 010-9256-1491

E. sojung.kang@arariogallery.com

전시팀 | 정서윤 담당 M. 010-9080-3343

E. seoyoon.jung@arariogallery.com